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26	01. 02	01. 09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2. 성탄예배 - 아브라함교회 사정으로 26일(주일)에 성탄축하예배드립니다(성탄헌금)
3. 청년 큐티 나눔 - 매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Zoom으로 모입니다(개별 신청 가능)
4. 재외국민등록 신고-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신고(1월 8일까지)
5. 영상 촬영으로 봉사해 주실 성도님을 찾습니다.
6. 코로나 대응 규칙을 숙지하고 지켜주시시오(Luca 확인)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당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4. ADVEN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119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복자 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골 1 : 15 - 23(신p324)..... 김복자 권사
 설 교 Predigt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126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시무권사

영적 방수 기름

어떤 사람이 오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름도 지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먹이도 주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엄치며 놀라고 호수에 넣어준 오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은 오리를 가지고 수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수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오리의 날개 밑에서는 방수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발바닥으로 문질러 몸에 묻힙니다. 그래야 물속에 들어가도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리들이 물속에서 정신 없이 발바닥을 움직이는 것도 바로 방수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오리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이라는 호수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방수 기름인 기도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기도해야 세상에 가라 앉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것은 게을렀거나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부패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라지는 심지 않아도 돌아나고 가꾸지 않아도 자랍니다. 이처럼 실패는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불행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 박헌성 목사
 (나성 열린문 교회 담임)

* 하나님이 당신을 어느 곳으로 데려다 놓든, 그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다. - Theresa 수녀(1910년 8월 ~ 1997년 9월) -